

# {-슬-} 통합 어간의 활용 양상

김양진 · 정경재(고려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불완전 활용을 하는 {-슬-}통합 어간<br>과 잔존형 |
| 2. 비불규칙 활용과 {-슬-}                   |                                   |
| 3. 완전 활용을 하는 {-슬-} 통합 어간<br>의 활용 양상 | 5. 결론                             |

## 1. 서론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슬-}은 어간에 통합되어 새로운 어휘로 재구조화(또는 재어휘화)<sup>1)</sup>된 많은 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선어말어미 {-슬-}이 통합하여 어휘화된 현대국어 용언의 목록을 확정하고 해당 용언 어간이 활용하는 양상

1) 재구조화는 둘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형태 간의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둔 용어이고 재어휘화는 어휘 요소에 문법 요소나 또 다른 어휘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로 만들어진 '결과'에 초점을 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과정을 구별하여 경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재구조화로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원적으로 {-술-}이 통합하여 재구조화된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기존 국어사전의 처리는 일관되어 있지 못하며, 일부 어휘는 {-술-} 통합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술-}에서 발달한 선어말어미들의 이형태 교체 양상이나 {-술-} 통합 어간의 활용 양상이 일반적인 비불규칙 용언의 활용 체계와는 다른데도 그에 대한 주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원적으로 {-술-}이 통합된 어간의 이형태와 활용 양상을 정리하고 이들의 패러다임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술-}에서 발달한 선어말어미와 몇몇 통합 어간의 활용 체계가 비불규칙 활용과 다름을 보이고 이에 주목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현대국어 {-술-} 통합 어간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들을 편의상 ‘-읍-’ 분리형 활용 어간, ‘-자읍-’ 통합형 활용 어간, 기타 {-술-} 통합형 어간의 세 유형으로 나눈 후, 각 용언의 활용 체계를 정리할 것이다. 끝으로 4장에서는 {-술-} 통합 어간 중 자읍형 어미와만 결합하여 불완전 통합 양상을 보이는 어간을 ‘잔존형<sup>2)</su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

2) 본고에서는 활용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완전 활용을 하는 형태소 체계에서 배제되어 폐쇄적인 분포를 갖게 된 형태를 ‘잔존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잔존형’은 특정 활용형이 완전히 고립되어 더 이상 활용형으로 사용되지 않고 형태상으로 고정된 ‘화석형’과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활용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에서 불완전 활용을 하는 어간이 되면 공식적으로는 ‘잔존형’ 어간으로 남겨졌다가 궁극적으로는 사어화(obsolescence)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화석형’은 사어화를 거친 단어 혹은 형태가 특정 단어의 내부에 그 흔적을 남긴 경우를 가리킨다.

## 2. ㅂ불규칙 활용과 {-술-}

현대국어의 ‘ㅂ’ 발음 어간의 활용은 ‘잡고, 잡아, 잡으니’와 같은 ㅂ규칙 활용과 ‘아름답고, 아름답워, 아름답으니’와 같은 ㅂ불규칙 활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ㅂ불규칙 활용은 일반적으로 ‘X워, X우니’와 같이 활용하는데, 어간 말 모음이 양성 모음인 일음절 단어 중 ‘돕-’과 ‘곱-’만이 ‘X와, X우니’로 예외적 활용을 보인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술-}이 통합하여 재어휘화한 대표적인 용언인 ‘받잡-, 묻잡-’ 등은 ‘X와, X오니’로 활용함으로써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또 다른 예외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활용 양상을 예를 통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입-(<닙-) : 입고, 입어, 입으니, 입으면
- (2) ㄱ. 덩-(<덜-) : 덩고, 더워, 더우니, 더우면  
     ㄴ. 가깝-(<갓깝-) : 가깝고,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우면
- (3) ㄱ. 곱-(<꼴-) : 곱고, 고와, 고우니, 고우면  
     ㄴ. 돕-(<뒹-) : 돕고, 도와, 도우니, 도우면
- (4) ㄱ. 받잡-(<받줄-) : 받잡고, 받자와, 받자오니, 받자오면  
     ㄴ. 묻잡-(<묻줄-) : 묻잡고, 묻자와, 묻자오니, 묻자오면

현대국어에서 ‘ㅂ’ 발음을 지닌 용언의 활용에는 (1)과 같이 ㅂ규칙 활용형이 있고 (2)와 같이 ㅂ불규칙 활용형이 있다. (2)에 대해 (3)은 일음절 용언 어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 불규칙 활용형이 되고 (4)는 다시 이들과는 또 다른 활용 양상을 갖는 예외적 불규칙 활용형이 된다. 현대국어에서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기원적으로 어간 말 자음이 ‘ㅂ’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4)와 같은 {-술-} 통합 어간은 기원적으로 말 자음이 ‘ㅂ’이었지만 일반적인 ㅂ불규칙

활용과 다른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술-}에서 변화·발달한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읍-}의 이형태 교체 양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간 \ 어미	자음형 어미 앞	모음형 · 매개모음형 어미 앞
모음과 ‘ㄹ’ 뒤	-읍-	-오-
‘ㄹ’을 제외한 자음 뒤	-으읍-	-으오-

[표 1] 선어말어미 {-읍-}의 결합 환경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읍-}은 두음이 자음인 어미(이하 자음형 어미) 앞에서 ‘-읍-, -으읍-’으로 실현되나 두음이 모음인 어미(이하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sup>3)</sup> 앞에서는 ‘ㅂ’이 탈락한 ‘-오-, -으오-’로 실현된다. {-읍-}이 어간 말 자음이 ‘ㅃ’이었던 ‘답-, 가깝-, 곱-, 뚝-’ 등의 용언 어간들과는 상이한 이형태 교체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읍-}의 이형태 교체 양상을 {-술-} 통합 어간 (4)에 적용하면, 활용형 ‘받자와, 받자오니, 받자오면’은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받잡-’의 ‘ㅂ’이 ‘오’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받자읍-’의 ‘ㅂ’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어미 ‘-(으)니, -(으)면’ 등은 선행어가 자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 ‘으’가 개재된 ‘-으니, -으면’형이 선택되고 선행어가 모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이 개재되지 않은 ‘-니, -면’형이 선택된다. 자음형 어미나 모음형 어미에 대해서 이러한 어미류를 매개모음형 어미라고 한다. 다만 ㅎ불규칙 용언인 ‘노랗-’이나 본고에서 논의하는 ‘-읍-’이나 ‘받자읍-’류, ‘저쭙-, 청쭙-’ 등의 ㅂ불규칙<sup>2)</sup> 용언은 선행어가 자음으로 끝남에도 ‘-니, -면’형이 선택된다. 물론 규칙형과 달리 불규칙 요건에 따라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에 속한 ‘ㅎ’이나 ‘ㅂ’이 탈락하여 모음 어간 환경을 유지한다.(노라니, 뵈오니, 받자오니, 저쭙니, 청쭙니)

- (5) ㄱ. 받자읍- : 받자읍고, 받자와, 받자오니, 받자오면  
 ㄴ. 묻자읍- : 묻자읍고, 묻자와, 묻자오니, 묻자오면

‘받자와, 받자오니, 받자오면’의 예를 (5)와 같이 ‘받자읍-’을 기본형으로 삼아 ‘ㄴ’이 탈락한 활용형으로 처리할 때, (4)와 같은 유형의 ㄴ불규칙 활용의 특수한 예외적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술-}에서 기원한 선어말어미와 {-술-}이 통합한 어간이 같은 계열의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이들이 국어 활용 체계에서 일정한 자연균을 이루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국어의 몇몇 ‘ㄴ’ 말음 용언에 대해 ‘ㄴ’이 탈락하는 ‘ㄴ불규칙2’를 설정한 논의들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필재(2000, 2001, 2002)의 일련의 논의에서는 ‘뵈다, 뵈웁다, 여쭙다’와 선어말어미 ‘-으읍-’이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활용을 함을 지적하고 이를 ‘ㄴ불규칙(B)’라 불렀다. 특히 유필재(2002)에서는 ‘뵈다’류의 공시적 활용 체계를 정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본래 ‘ㄴ불규칙(A)’ 활용을 하던 해당 용언이 ‘ㄴ불규칙(B)’ 활용을 하게 된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주채(2003)에서도 ‘뵈다, 뵈웁다, 여쭙다’와 선어말어미 ‘-으읍-’과 ‘-사읍-’이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활용을 함을 지적하고 이를 ‘ㄴ불규칙2’라 불렀다. 배주채(2003)은 현대국어에서 ‘ㄴ불규칙2’ 활용을 하는 어간과 선어말어미가 모두 {-술-}과 유관함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그 목록에 ‘-사읍-’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4)</sup>

4) 본고에서는 ‘-삽- ~ -사오-’가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읍- ~ -사오-’가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배주채(2003), 김양진·정경재(2010)에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김양진·정경재(2010)에서는 {-술-}에서 기원한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삽-, -사읍-, -사오-’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표 1]에서 살핀 {-으읍-}(-으읍 ~ -으웁 ~ -오 ~ -오오-)뿐 아니라 {-사읍-}(-사읍 ~ -사오-)도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유필재(2000<sup>1</sup>, 2001, 2002)와 배주채(2003)에서는 현대국어에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ㅂ’이 탈락하는 활용 체계가 존재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ㅂ불규칙’<sup>2</sup> 활용과 관련하여 ‘뵈다, 여쭙다’와 같은 한두 단어의 활용 체계에 대한 논의에 그쳤을 뿐이며 {-술-}에서 기원한 선어말어미들과 {-술-}이 통합하여 형성된 어간 전체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논의 이상의 의의를 갖기 어렵다.

본고는 현대국어에서 ‘ㅂ불규칙’<sup>2</sup> 활용을 보이는 예들이 {-술-}으로부터 기원한 선어말어미이거나 {-술-}이 통합하여 재어휘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용언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목록을 확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용언(선어말어미를 포함하여) 전체의 활용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개별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술-} 통합 어간 전체 목록을 대상으로 활용 체계를 고찰하였을 때, ‘뵈다-뵈웁다’, ‘여쭙다-여쭙웁다’의 관계와 ‘반잡다-반잡웁다’의 관계에서 동일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국어 시기 어간 말에 ‘ㅂ’을 지녔던 대부분의 용언이 현대국어에서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과 달리, {-술-} 통합 어간은 ㅂ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거나 잔존형이 되어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 3. 완전 활용을 하는 {-술-} 통합 어간의 활용 양상

본 장에서는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 {-술-} 통합 어간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들의 활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본고에서는 {-술-} 통합 어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살필 것인데, 이는 다만 기술의 편의에 의한 것이며 각 부류의 어휘화 양상이나 활용 양상에서 보이는 모습을 바탕으로 구분한 것

<sup>1</sup> ‘ㅂ’이 탈락하는, ㅂ불규칙<sup>2</sup> 활용을 한다고 보았다.

은 아니다.

3.1절에서는 {-습-} 통합 어간의 첫 번째 부류로 ‘뵈다-뵈습다’, ‘여쭙다-여쭙습다’의 활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기존 논의가 {-습-}이 통합된 ‘뵈다’, ‘여쭙다’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면 본고의 논의는 ‘뵈다’와 ‘뵈습다’, ‘여쭙다’와 ‘여쭙습다’의 활용 양상을 고려하여 전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2절에서는 두 번째 부류로, 선어말어미 ‘-잡-, -자습-’이 통합하여 어휘화한 ‘듣잡다-듣자습다’, ‘묻잡다-묻자습다’, ‘받잡다-받자습다’, ‘쫓잡다-쫓자습다’의 활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3.3절에서는 그 밖의 {-습-} 통합 어간인 ‘저쭙다, 칭쭙다, 친쭙다, 친쭙다, 나쭙다, 감쭙다’ 등의 활용 양상을 살필 것이다.

### 3.1. ‘-습-’ 분리형 활용 어간의 경우<sup>5)</sup>

선어말어미 {-습-}이 통합하여 재구조화된 첫 번째 부류의 어휘는 ‘뵈다’와 ‘여쭙다’이다. ‘뵈다’와 ‘여쭙다’는 재구조화한 과정은 다르지만, ‘뵈다’의 활용 패러다임은 ‘뵈다’, ‘뵈습다’의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고려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여쭙다’의 활용 패러다임도 ‘여쭙다’, ‘여쭙습다’의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고려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함께 살필 만하다.

우선 ‘뵈다’, ‘뵈다’, ‘뵈습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뵈습다’는 어간 ‘뵈-’에 선어말어미 {-습-}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뵈습-’이 ‘뵈습-’을 거쳐 ‘뵈습-’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뵈습다’는 현대국어에 들어 ‘뵈다’의 형태로도 등장한다. 유필재(2002)에서는 ‘뵈습다’가 ‘뵈다’로 모습을 바꾼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회오리바람 > 회:리바람’의 변

5) 본 절에서는 논의 전개의 필요상 ‘-습-’ 분리형인 ‘뵈습다’, ‘여쭙습다’와 공시적으로 {-습-}을 분석해 낼 수 없는 ‘뵈다’, ‘여쭙다’, ‘여쭙다’를 함께 다룬다. 그러나 이 절의 초점은 어간 ‘뵈-’, ‘여쭙-’로부터 분리되는 선어말어미 ‘-습-’의 비불규칙<sup>2</sup> 활용 양상에 있다. 이 절에서 ‘뵈습-’, ‘여쭙습-’이 규칙적 활용형으로 재해석됨에 따라 ‘뵈-’과 ‘여쭙-’은 불완전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으로 해석된다. 이들을 포함하여 불완전 활용을 하는 나머지 어휘들은 4장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화처럼 ‘뵈옵다 > 뵈:다’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뵈다’, ‘뵈다’, ‘뵈옵다’ 사이의 관계와 이들의 공시적인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 단어들에 대한 기존 사전의 통일되지 않은 처리는 이 용언들에 대한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세 용언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각 사전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기존 국어사전에서 ‘뵈다, 뵈다, 뵈옵다’의 활용에 대해 제시한 정보와 용례에 제시된 활용형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6)</sup>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뵈다’의 활용에 대해서는 각 사전에서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으나, ‘뵈다’와 ‘뵈옵다’에 대해서는 기왕의 처리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어간 \ 어미		사전			
		<표준> <sup>7)</sup>	<금성>	<우리>	<연세>
뵈다	모음형	뵈어/뵈	(뵈어/뵈)	뵈어(/뵈)	뵈어/뵈
	매개모음형	뵈니	뵈니	(뵈니)	뵈니
뵈다	모음형	결합 불가	뵈워	명시 안함	명시 안함
	매개모음형	결합 불가	뵈오니	명시 안함	명시 안함
뵈옵다	모음형			뵈어	뵈와
	매개모음형			(뵈니)	(뵈오니)

[표 2] ‘뵈다, 뵈다, 뵈옵다’의 활용에 대한 기간(既刊) 사전의 처리

우선 ‘뵈다, 뵈다, 뵈옵다’의 관계에 대해 <표준>과 <금성>에서는 ‘뵈다’와 ‘뵈다’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뵈다’를 ‘뵈다’보다 상대를 대우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았다. ‘뵈옵다’는 <표준>과 <금성> 모두 등재하지 않았

6) [표 2]에서 괄호 안에 적은 활용형은 해당 사전에서 직접 밝히지 않았으나 모음형 어미 결합형을 바탕으로 매개모음형 어미의 결합형을 추정하거나 매개모음형 어미 결합형을 바탕으로 모음형 어미 결합형을 추정한 것이다.

7) <표준>은 <표준국어대사전>(1999), <금성>은 <금성판국어대사전>(1991/1996), <우리>는 <우리말큰사전>(1992), <연세>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의 약칭으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조선>은 <조선말대사전>(1992/2006)의 약칭이다.



는데 이는 이 두 사전이 ‘뵤다’를 어간 ‘뵤-’와 선어말어미 ‘-옴-’의 단순 결합형으로 본다면 마땅한 일이다. <우리>와 <연세>에서는 ‘뵤다’와 ‘뵤다’, ‘뵤다’를 모두 등재하고 ‘뵤다’를 ‘뵤다’의 준말로 보고 있다. 한편 ‘뵤다, 뵤다’의 활용에 대해 <표준>에서는 ‘뵤다’를 모음형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금성>에서는 ‘뵤다’의 ‘뵤’이 모음형 어미나 매개 모음형 어미 앞에서 /w/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ㅂ불규칙 활용 어간으로 보고 있다. ‘뵤다’를 표제어로 등재한 <우리>에서는 ‘뵤다’의 활용형을 ‘뵤다’와 동일하게 ‘뵤어, (뵤니)’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연세>는 ‘뵤다’의 ‘-아’ 활용형을 ‘뵤와’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어형을 ‘뵤’이 탈락하는 ‘ㅂ불규칙2’ 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필재(2002)에서는 ‘뵤다’류 동사의 활용 양상을 면밀하게 살핀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논의에서는 ‘뵤다’의 활용형이 원순모음 ‘ㄱ’ 뒤에서, 같은 [원순성]을 가진 /w/가 탈락하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뵤오와 > 뵤와)을 겪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뵤’이 탈락하는 활용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배주채(2003)에서도 ‘뵤다, 뵤다’가 모음형·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뵤’이 탈락하는 활용을 함을 지적하였다.

‘뵤다, 뵤다’의 활용 패러다임에 대한 이 두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미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뵤다	뵤고	뵤지	뵤어/뵤	뵤었-/뵤-	뵤니	뵤
뵤다	뵤고	뵤지	뵤와	뵤왔-	뵤오니	뵤은

[표 3] ‘뵤다, 뵤다’의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의 입장

[표 3]과 같이 ‘뵤다’와 ‘뵤다’에 대해 ‘ㅂ불규칙2’ 활용을 제안하는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뵈어/뵈, 뵈니’ 등을 모두 ‘뵈-’의 활용형으로 보고 ‘뵈다’는 독자적인 용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간 ‘뵈-’가 자음형 어미와 결합한 예가 현대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講]의 의미로 쓰인 ‘뵈-’는 (6)의 예에서 보듯이 그 용법이 현대국어에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1억 어절 규모의 현대국어 말뭉치에서 ‘뵈-’가 자음형 어미와 결합한 예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 (6) 가. 지금 교장 선생님을 뵈고 어린이회도 곧 열도록 할 테니 자, 교장실로 가자.<꼬마 옥이>
- 나. 처음 선생님을 뵈는 사람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수정의 메아리>
- 다. 젊은 승려는 몇몇이 가끔 암자를 찾아가 뵈지만, 거동이 과연 구름 같으신 분이라 종종 헛걸음을 치는 적이 많습니다.<장길산 3>

(6)에서 ‘뵈고’, ‘뵈는’, ‘뵈지만’ 등의 활용 양상에 따라 ‘뵈다’와는 별도의 용언 어간으로 ‘뵈다’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뵈다’의 ▮불규칙2 활용형으로 상정된 ‘뵈어/뵈, 뵈니, 뵈면’과 ‘뵈다’의 활용형 ‘뵈어/뵈, 뵈니, 뵈면’이 중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은 불완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음이 모음인 용언 어간이 불완전 활용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뵈다’의 활용형 ‘뵈어/뵈, 뵈니, 뵈면’을 상정하는 것이 ‘뵈다’의 ▮불규칙2 활용형 ‘뵈어/뵈, 뵈니, 뵈면’을 상정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뵈다’가 ▮불규칙 활용에 대한 또 다른 제3의 예외적인 활용을 하여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뵈와, 뵈오니, 뵈오면’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양상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뵈다’의 활용형을 ‘뵈와, 뵈오니, 뵈오면’으로 본다면 이는 ▮불규

칙이나 ㅂ불규칙2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이는 2장에서 ㅂ불규칙 활용에 대한 예외적 형태에 대해 ㅂ불규칙2 활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종류의 특수한 ㅂ불규칙의 부류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처리상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선어말어미 ‘-읍-’이 결합한 ‘뵈읍-’의 존재는 (6)과 같은 예에서 확인되는 ‘뵈-’의 존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된다. 이때의 ‘뵈읍-’은 선어말어미가 어간과 결합하여 재어휘화된 예로 보기 어렵고 공시적인 선어말어미 결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뵈읍-’의 활용은 ㅂ불규칙2 활용을 하는 ‘-읍-’의 활용 양상을 따라 ‘뵈와, 뵈오니, 뵈오면’과 같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뵈어/뵈, 뵈니, 뵈면’이 ‘뵈다’의 활용형으로, ‘뵈와, 뵈오니, 뵈오면’이 ‘뵈읍다’의 활용형으로 귀속되면,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 ‘뵈다’에만 귀속되는 활용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뵈다’와 ‘뵈읍다’가 모든 유형의 어미와 결합하여 완전 활용을 하는 반면, ‘뵈다’는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8)</sup>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 3]에서 보였던 ‘뵈다’, ‘뵈읍

8) 완전 활용과 불완전 활용의 개념은 김양진·정경재(2010)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든 어미들과 결합할 수 있는 용언 어간을 ‘완전 활용 어간’이라 하고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 어간을 ‘불완전 활용 어간’이라 하였다. 또한 ‘불완전 활용 어간’을 ‘불규칙 불완전 활용 어간(즉 불규어간)’과 ‘환경 제약적 불완전 활용 어간’으로 구별하여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불규칙 불완전 활용 어간’에는 ‘더블-, 서슴-, 데리-’처럼 일부 어말어미와만 결합하는 유형이 해당된다. ‘환경 제약적 불완전 활용 어간’에는 ‘갓-(<가지-), 닷-(<다지-), 딛-(<디디-), 맞-(<마치-), 밋-(<미치-), 빙-(<빙기-), 붓-(<부수-), ……’ 등 모음형 어미·매개모음형 어미와의 결합이 제한되는 유형(이들은 어말자음이 폐쇄음인 준말 어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과 ‘까불-(<까부르-), 깨뜰-(<깨뜨리-), 머물-(<머무르-), 서툰-(<서두르-), 서툼-(<서투르-), 썰-(<썰리-), 굴-(<구르-), ……’ 등 모음형 어미와의 결합만이 제한되는 유형(이들은 어말자음이 유음 ‘ㄹ’인 준말 어간들로 매개모음형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ㄹ’ 말음 어간과 동

다'의 활용 양상을 수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미 어간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되다	되고	되지	되어/배	되었-/뻬-	되니	뵈
뵈다	뵈고	뵈지	-	-	-	-
뵈웁다	뵈웁고	뵈웁지	뵈와	뵈왔-	뵈오니	뵈은

[표 4] 수정·정리된 '되다, 뵈다, 뵈웁다'의 활용 양상

여기서 '뵈-'는 '되다'의 피동형이 높임의 의미를 획득하여 존대어가 된 것이고 '뵈웁-'은 이러한 '뵈-'에 겸양의 선어말어미 '-웁-'이 결합한 활용형이며 '뵈-'은 '뵈웁-'이 줄어들어 재어휘화한 것이다. '뵈웁-'이 '뵈-'으로 재어휘화하는 것은 본래 객체 존대의 의미를 지닌 '뵈-'에 겸양의 선어말어미 '-웁-'이 결합한 '뵈웁-'이 존대-겸양 의미의 잉여성으로 인하여 '뵈-'와 실제적인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단어 사이의 의미적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는 '되고', '뵈고', '뵈웁고' 간에 실질적인 화계상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이 '어른을 되고/뵈고/뵈웁고'와 같이 실현되는 경우에 그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의어적 쓰임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세 용언이 자음형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의 사용 빈도가 '뵈고 > 뵈웁고 > 되고'의 순서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뵈고'의 사용 빈도가 '되고'나 '뵈웁고'의 사용 빈도보다 높다는 사실이 '뵈-'이 '뵈-' 혹은 '뵈웁-'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어간 '뵈-'와 선어말어미 '-웁-'을 생산성 있는 형태소로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뵈-'은 자음형

일하게 '까부니, 깨뜨니, 머무니, 서두니, 서툼니, 써니, 구니' 등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이 있다.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뵤-’은 ‘뵤읍-’에서 줄어들어 재어휘화된 신형으로서 ‘뵤읍-’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니르- ~ 니를-’과 같은 쌍형 어간의 활용형이 혼합된 것처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뵤-’의 활용 양상과 ‘뵤-’의 활용 양상이 통합되어 ‘뵤고, 뵤지, 뵤어/뵤, 뵤었-/뵤-, 뵤니, 뵤’으로 활용 패러다임이 재편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sup>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뵤-’와 ‘뵤읍-’은 완전 활용 어간인 반면 ‘뵤-’은 활용이 자음형 어미 앞에서 제한되는 불완전 활용 어간이다. ‘뵤다’가 객체 존대를 어휘적으로 수반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뵤읍다’의 준말로부터 기원한 ‘뵤다’의 객체 존대 의미는 잉여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서 이 두 단어의 관계는 단순한 유의어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참고 관계의 어휘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쭈다, 여쭈다, 여쭈읍다’의 어휘 관계 및 활용 양상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여쭈다’와 ‘여쭈다’를 모두 표제어로 선정하고 있는데 사전마다 처리 양상은 서로 다르다. <표준>에서는 이 두 단어를 유의어로 처리하였고 <조선>에서는 ‘여쭈다’를 ‘여쭈읍다’의 준말로 처리하면

9) 중세국어에서 ‘니르고~니르니~니르면~니러’, ‘니를고~니르니~니르면~니르러’로 활용하면서 대립하던 ‘니르다’와 ‘니를다’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현대국어에 이르러 ‘이르고~이르니~이르면~이르러’로 활용의 양상이 통합되어 ‘리’불규칙 용언을 이룬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고영근(1987)에서는 이를 보충법의 예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보충법으로 처리한 것은 이러한 형태론적 혼합을 염두에 둔 처리로 판단된다. 그러나 ‘뵤다’와 ‘뵤다’의 활용 양상은 아직 ‘뵤고, 뵤지’ 등의 형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론적 혼합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뵤고’, ‘뵤지’ 등의 활용 예가 완전히 사용되지 않게 되면 공식적으로 ‘뵤다’라는 기본형도 ‘뵤다’로 대체되고 ‘뵤어/뵤’ 등은 ‘뵤다’에 대한 보충법적 활용형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뵤고’, ‘뵤지’의 활용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사의 기본형도 여전히 ‘뵤다’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뵤다’를 ‘X하-’계 ㅂ불규칙<sup>2</sup> 용언인 ‘저쭈-, 칭쭈-’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서 ‘여쭈다’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보았다. <우리>에서는 ‘여쭈다’를 ‘여쭈다’의 준말로 처리하고 ‘여쭈옵다’는 ‘여쭈다’의 잘못으로 처리하였으며, <금성>과 <연세>에서는 ‘여쭈다’를 ‘여쭈다’의 높임말로 처리하였다.

본고는 ‘여쭈다’와 ‘여쭈다’가 높임의 등급이 다르다는 <조선>과 <금성>, <연세>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여쭈다’가 대상을 높이는 표현인 다음에는 그 대상을 더 높이고 덜 높이는 정도를 측정할 언어적 척도가 없는 상태에서 ‘여쭈다’보다 ‘여쭈다’가 대상을 더 높이는 단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고에서는 ‘여쭈다’와 ‘여쭈다’가 각각 ‘연즐-’의 활용형 중에서 모음형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인 ‘연즈오-’가 재구조화한 단어와 자음형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인 ‘연즐-’이 재구조화한 단어로, 공시적으로는 유의 관계에 놓인 별개의 단어라고 판단한다.<sup>10)</sup> 한편 ‘여쭈옵다’는 ‘여쭈-’에 ‘-옵-’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소 구성상 ‘여쭈-’나 ‘여쭈-’과는 차이를 보인다.

- (7) ㄱ. 그는 친구에게 모르는 것을 묻고 있었다.
- ㄴ. 그는 할아버지께 모르는 것을 {여쭈고/여쭈고} 있었다.

‘여쭈다, 여쭈다’의 어휘 관계에 대한 기존 국어사전의 처리가 복잡한 데 비하면, 어떤 국어사전이든 ‘여쭈다’를 ▮불규칙 용언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은 공통적이다.<sup>11)</sup> 기존 국어사전의 처리를 바탕으로 ‘여쭈다’와 ‘여쭈다’

10) ‘여쭈다’에 대해서는 이미 유창돈(1964, 1971), 고영근(1987) 등에서 어휘화를 겪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여쭈다’에 대해서도 신창순(1966)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적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물론 ‘여쭈-’은 ‘연즐다’의 자음형 어미 활용형 ‘연즐-’에서, ‘여쭈-’는 ‘연즐다’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 ‘연즈오-’에서 발달한 어형이라는 것은 국어학적 일반 지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식적 관찰에 불과하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여쭈-’가 활용형 ‘여쭈옵-’의 어간으로 실현된다는 가정에 따라 ‘여쭈-’ 및 ‘여쭈옵-’ 계열의 활용 양상과 ‘여쭈-’ 계열의 활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성이 있다.

의 활용 양상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미 어간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여쭙-	여쭙고	여쭙지	여쭙어/여쭙	여쭙었-/여쭙-	여쭙으니	여쭙은
여쭙-	여쭙고	여쭙지	여쭙위	여쭙웠-	여쭙우니	여쭙운

[표 5] ‘여쭙다, 여쭙다’의 활용에 대한 기간(既刊) 사전의 처리

즉 [표 5]와 같이 기존의 국어사전들에서는 ‘여쭙다’가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말 ‘ㄷ’이 ‘ㄷ’로 실현되는 ㅂ불규칙<sup>1)</sup> 용언인 것으로 보아 ‘여쭙다’의 활용형과 체계적으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기존 국어사전에서 ‘여쭙다’의 활용형으로 제시된 ‘여쭙우니, 여쭙운’ 등은 실제로 그 실현 양상이 불분명한 예이다. 21세기 세종계획의 결과물인 1억 어절 규모의 세종말뭉치에는 ‘여쭙다’가 모음형이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하여 ‘여쭙우-’의 형태로 활용한 예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여쭙다’의 활용형으로서의 ‘여쭙우-’ 계열의 실체를 의심해 볼 이유가 된다. ‘여쭙우-’라는 형태가 실제 언어 실현형이 아니라면 ‘여쭙-’을 ㅂ불규칙 활용이 아닌 ㅂ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용언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필재(2001)과 배주채(2003)에서도 ‘여쭙-’이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하여 ‘ㄷ’이 탈락하는 활용 양상을 지니는 단어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논의들에서는 ‘여쭙어/여쭙, 여쭙니’ 등을 모두 ‘여쭙-’의 활용형으로 보고 ‘여쭙다’를 기본형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 연구들에서 ‘뵈다’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쭙-’가 자음형 어미와 결합한 현대

11) 이 단어의 활용형에 대하여는 <조선>, <표준>, <우리> 등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여쭙위’, ‘여쭙우니’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성>에서는 이를 ㅂ불규칙 용언으로 처리하고도 실제 활용형은 일반적인 ㅂ불규칙 활용형들과 달리 ‘여쭙위, 여쭙오니’로 처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국어 말뭉치의 예 (8)은 모두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예이므로 ‘여쭙다’를 기본형으로 삼지 않을 이유는 없다.

- (8) ㄱ. 가서 할아버지께 상민이가 깨어났다고 여쭙고 와.<가려진 별들>
- 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 여쭙게 되었습니다.<불교 이야기 2>
- 다. 시생은 이쯤해서 하직을 여쭙겠소.<객주 8>
- 르. 나중에 말씀 여쭙기로 하지요.<객주 5>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여쭙다’를 인정한 상태에서 ‘여쭙다’를 ㄹ불규칙2 활용으로 본다면, ‘여쭙다’의 활용형과 ‘여쭙다’의 활용형이 ‘여쭙어/여쭙, 여쭙니, 여쭙면’으로 동일하게 실현되어 이 두 단어의 모음형·매개모음형 활용형 전체가 겹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뵈다, 뵈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은 ㄹ불완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음이 모음인 용언 어간이 ㄹ불완전 활용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쭙-’에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가 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여쭙어/여쭙, 여쭙니, 여쭙면’ 등은 ‘여쭙-’의 활용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쭙다’가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하여 ㄹ불규칙 활용(여쭙워, 여쭙우니)이나 ㄹ불규칙2 활용(여쭙어/여쭙, 여쭙니)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적 ㄹ불규칙 활용(여쭙와, 여쭙오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쭙-’에 ‘-옵-’이 결합한 ‘여쭙옵다’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쭙옵다’의 활용형은 세종 말뭉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9) ㄱ. 진지나 하여 상을 올려 잡순 후에 말씀 여쭙옵고 떠나게 하오리다.<중학교 국어 1\_공양미 삼백석>
- 나. 여쭙옵기 황송하오나 원네는 관왕(關王)의 딸로 점지되어 무복에 종사하고 있사옵니다.<객주 8>



ㄷ. 아버지상(喪)에 「대고(大故)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어머니상에는 「상사(喪事) 말씀 무어라고 여쭙오리까?」 라고 부모를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중략)<교양인의 화법>

즉 중세국어의 ‘열죽-’과 관련한 단어로는 공시적으로 ‘여쭙다’, ‘여쭙다’ 외에도 ‘여쭙웁다’가 존재하며, 공시적으로 나타나는 ‘여쭙와, 여쭙오니’ 등의 활용형은 ‘여쭙다’의 활용형이 아닌 ‘여쭙웁다’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한다.<sup>12)</sup> ‘여쭙웁다’는 ‘여쭙-’와 ‘-웁-’의 공시적 결합형으로, ‘-웁-’의 활용 양상에 따라 비불규칙<sup>2</sup>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쭙다’와 ‘여쭙웁다’의 관계는 앞서 살핀 ‘뵈다’, ‘뵈웁다’의 관계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 5]에서 보인 ‘여쭙다’와 ‘여쭙다’의 활용 양상을 수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미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여쭙-	여쭙고	여쭙지	여쭙어/여쭙	여쭙었-/여쭙	여쭙으니	여쭙은
여쭙-	여쭙고	여쭙지	-	-	-	-
여쭙웁-	여쭙웁고	여쭙웁지	여쭙와	여쭙왔-	여쭙오니	여쭙은

[표 6] 수정 · 정리된 ‘여쭙다, 여쭙다, 여쭙웁다’의 활용 양상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여쭙-’와 ‘여쭙웁-’은 완전 활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쭙-’만 자음형 어미 앞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불완전 활용 어간으로 재어휘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쭙웁-’ 경우는 앞서 살핀 ‘뵈웁-’의

12) ‘여쭙위’나 ‘여쭙와’는 모두 현대국어 세종 말뭉치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형이다. 그러나 말뭉치에 나타나는 매개모음 어미 활용형 ‘여쭙오니’ 등을 고려하면 모음 어미 결합형은 ‘여쭙와’로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는 ‘여쭙위’와 ‘여쭙와’가 모두 확인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여쭙위’, ‘여쭙왔-’은 ‘여쭙다’의 활용형 ‘여쭙-어’나 ‘여쭙-었-’이 입말에서 원순 동화를 한 [여쭙위], [여쭙위]이 표기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우와 같이 공시적으로 ‘여쭙-+-옴-’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을 높이는 ‘여쭙-’에 결합된 ‘-옴-’은 화자 겸양의 기능을 갖는 어미로, ‘여쭙-’와 ‘여쭙옴-’의 차이는 선어말어미 ‘-옴-’에 의하여 화자 겸양의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뵈다-뵈다’와 ‘여쭙다-여쭙다’의 차이는 ‘뵈다’가 어휘적 존대어 ‘뵈다’에 선어말어미 ‘-옴-’이 결합한 ‘뵈옴-’이 줄면서 재어휘화한 단어인 데 비해서 ‘여쭙다, 여쭙다’는 하나의 형태 ‘연줄-’의 자음형 어미 활용형과 모음형 어미 활용형이 각각 재어휘화되어 분기된 단어라는 점이다. 모음형 어미 활용형인 ‘여쭙-’가 자음형 어미 앞까지 결합 분포를 넓히면서 ‘여쭙-’이 형태소 체계에서 밀려나 폐쇄적 결합 분포를 지닌 잔존형이 되어 두 활용형이 별개의 형태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뵈다-뵈다’는 서로 유의 관계에 놓이기 어렵고 참고어로 처리될 법한 것이지만 ‘여쭙다-여쭙다’는 활용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공시적인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 처리될 수 있다.

유필재(2000나, 2001, 2002)와 배주채(2003)에서는 현대국어에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ㅂ’이 탈락하는 활용 체계가 존재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뵈다, 뵈옴다, 여쭙다’를 ‘ㅂ불규칙2’ 활용으로 보면서 ‘뵈다’와 ‘여쭙다’를 독립된 어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이 자음형 어미와 결합한 예가 생산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독립된 어간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뵈옴다’, ‘여쭙옴다’는 공시적으로 ‘-옴-’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선어말어미 ‘-옴-’의 활용에 따라 ㅂ불규칙2 활용을 하는 반면, ‘뵈다’, ‘여쭙다’는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2. ‘-자음-’ 통합형 활용 어간의 경우<sup>13)</sup>

선어말어미 {-습-}이 통합하여 재구조화한(또는 재어휘화된) 두 번째 부류는 ‘받잡다-받자웁다’류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용언 어간에 ‘-잡-(<-줍-)’이 통합한 것들로, ‘듣잡다, 묻잡다, 받잡다, 좃잡다’가 이에 속한다. 선어말어미 ‘-잡-, -자음-, -자오-’는 ‘말음이 ㄷ, ㅈ, ㅊ인 어간’과만 결합하여 제약된 결합 분포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홍빈(1998)에서 지적하였듯이 어간 말 자음이 ‘ㄷ, ㅈ, ㅊ’인 모든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간과 ‘-잡-’이 결합한 형태는 어휘화를 거쳐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단어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잡-’계 선어말어미들은 ‘듣잡다, 묻잡다, 받잡다, 좃잡다’ 등의 단어에 통합된 분석적 형태소로만 의미가 있지, 공식적으로 생산성 있는 굴절 어미로 인정하기 어렵다.<sup>14)</sup>

13) 논의 전개의 필요상 ‘X자음-’계 어휘와 ‘X잡-’계 어휘를 함께 다루지만 이 절의 초점은 ‘-자음-’ 통합형 비불규칙2 활용 어간에 있다. 불완전 활용을 하는 ‘X잡-’계 어휘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14) ‘-자음-’계 선어말어미에 대한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첫째, ‘-자음-’계 선어말어미의 분포는 몹시 제약되어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말 자음이 ‘ㄷ, ㅈ, ㅊ’인 어간에 결합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으나 말 자음이 ‘ㄷ, ㅈ, ㅊ’인 모든 어간에 결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현대국어에서는 3~4개의 어휘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대국어에서 ‘-음-’계, ‘-사음-’계와 ‘-자음-’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분화되었다. ‘-음-’계와 ‘-사음-’계는 현대국어에서 존칭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에서도 청자 존대 혹은 화자 겸양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예 : 어서 떠나웁소서./따님께서 무척 아름다우시웁니다.) 그러나 ‘-자음-’계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듣잡다, 묻잡다, 받잡다, 좃잡다’는 존칭의 객체가 존재하는 문장에서만 사용되며, 청자 존대나 화자 겸양의 기능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장에서도 사용된다. (예 : 나에게 부친 소식을 묻자오면 무슨 말로 대답할꼬? <표준>) 또한 ‘-음-’계 선어말어미가 ‘-시-’ 뒤에 배열된다는 점도 이들이 더 이상 객체 존대의 기능을 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자음-’계 선어말어미의 경우 어간과의 사이에 ‘-시-’가 들어갈 수 없다. (예 : 받-으시-오-면/받자오-시-면)

국어사전에서는 이들 ‘받잡-’류 용언을 등재하고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받자오-’로 활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선어말어미에 대해 ‘-자옴-’과 ‘-자오-’를 이형태로 처리한 <금성>과 <연세>에서도 ‘받잡다’에 대해 ‘받자와’라는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에서는 활용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받잡-’류 용언을 ‘ㄷ불규칙’ 용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단어가 ㄷ불규칙 활용 어간이라면 ‘받잡고, \*받자위, \*받자우니’처럼 활용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받잡고, 받자와, 받자오니’와 같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처리는 잘못된 것이다.

2장에서도 살폈듯이 ‘받잡-’류 용언의 활용은 일반적인 ㄷ불규칙 용언의 활용과 그 양상이 다르다.

어미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ㄷ규칙	잡-	잡고	잡지	잡아	잡았-	잡으니	잡은
ㄷ불규칙	가잡-	가잡고	가잡지	가까워	가까웠-	가까우니	가까운
예외적 ㄷ불규칙	돕-	돕고	돕지	도와	도왔-	도우니	도운
‘받잡-’류	받잡-	받잡고	받잡지	받자와	받자왔-	받자오니	받자온

[표 7] 어간 말 자음이 ‘ㄷ’인 용언의 유형별 활용 양상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받잡-’류 용언은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 ‘\*받자위, \*받자우니’로 활용하지 않고 ‘받자와, 받자오니’로 활용하므로 ㄷ규칙 용언, ㄷ불규칙 용언, 예외적 ㄷ불규칙 용언 중 어떤 부류와도 활용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들을 ㄷ불규칙 용언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ㄷ불규칙 활용형의 예외’를 따로 설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2장에서 살핀 {-옴-}의 이형태 교체 양상과 3.1절에서 살핀 ‘뵈옵다’, ‘여쭙옵다’의 활용 양상을 [표 7]의 {-술-} 통합 어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활용

형 ‘받자와, 받자오니, 받자오면’은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받잡-’의 ‘ㅂ’이 ‘오’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받자옴-’의 ‘ㅂ’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과 같이 ‘받자옴-’을 기본형으로 삼아 ‘ㅂ’이 탈락하는 활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 [표 7]에서와 같은 ‘ㅂ’ 불규칙 활용의 특수한 예외적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슴-}에서 기원한 선어말어미와 {-슴-}이 통합한 어간이 같은 계열의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이들이 활용에서 일정한 자연군을 이루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미 \ 어간	자음형		모음형		매개모음형	
	-고	-지	-어	-었-	-으니	-은
받잡다	받잡고	받잡지	-	-	-	-
받자옴다	받자옴고	받자옴지	받자와	받자왔-	받자오니	받자온

[표 8] 수정 · 정리된 ‘받잡다-받자옴다’류 용언의 활용 양상

[표 8]에서 ‘받자옴다’가 보이는 활용은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ㅂ’이 탈락하는 ‘ㅂ불규칙2’ 활용이다. 중세국어 시기 {-슴-}은 여타의 /ㄹ/ 말음 어간들과 같이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ㄹ/이 /w/로 바뀌는 변화를 하였으며, ‘받잡-’의 활용도 그와 동일하였다. 그런데 ‘받자옴-’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어 ‘ㅂ불규칙2’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받잡-’은 어떠한 이유로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3.1절에서 살펴듯이 유필재(2002)에서는 ‘뵈옴다’의 활용형이 원순모음 ‘ㄱ’ 뒤에서 같은 [원순성]을 가진 /w/가 탈락하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뵈오와 > 뵈와)을 겪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 ‘ㅂ’이 탈락하는 활용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받자옴-’에도 동일한 변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본래 ‘받자옴-’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은 ‘받자오와’였을 것이다. (10)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받자옴-’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 ‘받자오와’에서 /w/가 탈락하는 변화 과정을 통해 ‘받자오와’가 ‘받자와’로 변하면서 ‘받자오-’가 ‘받자옴-’의 이형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경종대왕 원년 신륙 팔월 기미 삭 무인에 상이 즈교를 받즈오와 명  
 호오샤 왕 데를 칙납호오시다<1756천의해, 1, 001a>

‘받자옴-’이 ‘받자오-’를 이형태로 지니면서 ‘받잡-’과 ‘받자옴-’은 ‘받자오-’라는 활용형을 두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받잡다’는 ‘받자옴다’와의 활용 체계 경쟁에서 밀려 잔존형이 되어,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받잡다’의 모습은 3.1절에서 ‘여쭙다’가 ‘여쭈다’의 결합 분포 확장에 따라 잔존형으로 남게 되고 현대국어에서는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뵈다-뵈옴다’, ‘여쭙다-여쭈옴다’가 보이는 활용 양상과 ‘받잡다-받자옴다’가 보이는 활용 양상 사이에 동일성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뵈다’, ‘여쭙다’, ‘받잡다’가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잔존형 ‘뵈다’, ‘여쭙다’, ‘받잡다’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4장에서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 3.3. 기타 {-술-} 통합형 어간의 경우

선어말어미 {-술-}이 통합하여 재구조화한 세 번째 부류의 어휘는 ‘저쭙다’, ‘칭쭙다’, ‘친쭙다’, ‘친쭈다’, ‘나쭙다’, ‘감쭙다’이다.<sup>15)</sup> 이들은 기원적

15) 본고에서는 ‘저쭙다’와 ‘칭쭙다’를  $\mu$ 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어간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유필재(2000)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듯이 현대국어의 ‘잡숫다’도 본래 ‘잡숫다’에서 온 것이므로 이 부류에 속하여 같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잡숫다’는 공식적으로  $\mu$ 불규칙 용언으로 처리되므로 활용 패러다임상 이견이 없으며  $\mu$ 불규칙<sup>2</sup> 활용과 불완전 활용에 대해 다루는 본고의 논

으로는 {-술-}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 상이한 재어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활용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자연 부류로 묶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편의상 ‘기타 {-술-} 통합형 어간’으로 부르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용의 양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저쭙다’<sup>16)</sup>는 세종 말뭉치에 나타난 (11)과 같은 예를 통해 자음형 어미와 결합하여 ‘저쭙-’의 형태로,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하여 ‘저쭙-’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1) ㄱ. 내가 친히 가서 부처님께 저쭙고 올 테다.<임격정 6>  
 ㄴ. 조석예불도 저쭙지 않았다.<꿈>  
 ㄷ. 무릎이 닳도록 오체투지하여 조석예불에 기도를 저쭙며 (중략)<꿈>

지에 벗어나므로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다만 ‘잡습-’이 ㅅ불규칙 활용을 하는 ‘잡습-’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단계에서 ㅂ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쭙다’와 ‘칭쭙다’를 ㅂ불규칙<sup>2)</sup> 활용으로 보는 본고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무르와가다’, ‘무르와내다’도 기원적으로는 {-술-} 통합 어간에 포함된다. 이 단어는 ‘무르-술-아 # 가-/내-[보조용언]’의 구성이 재어회화된 것인데, 공시적으로 활용형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어근화하여 ‘무르와가다>무와가다, 무르와내다>무와내다’와 같은 축약형으로 이어진다. 이 단어가 어근화하는 양상에는 선어말어미 {-술-}의 어간 통합 과정과 관련이 있지만 공시적으로 이는 어간으로 사용될 뿐이므로 활용 양상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6) ‘저쭙다’는 역사적으로 ‘절+ㅎ+술-’ 혹은 \*‘절+술-’의 구성을 지닌 ‘저술-’에서 기원한 단어이다. 고영근(1987)에서는 ‘저쭙-’의 중세국어 소급형인 ‘저술-’이 \*‘절+술-’의 구성으로 공시적으로는 ‘절ㅎ-’의 보충어기를 이루는 것으로 본 바 있다. 신창순(1966)에서도 ‘저술-’을 보충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바 있다. 본고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의 ‘ㅎ-’ 생략 이후의 ‘ㄹ’ 탈락과 같은 형태 변화에 의해 ‘저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저술-’이 ‘저쭙-’으로 발달한 과정은 분명하지 않다. ‘저술-’은 본래 ‘저압-’이나 ‘저삼-’ 혹은 ‘저웁-’이나 ‘저쭙-’으로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활용형이지만 자음 어간 뒤에서 ‘-삼-’이 [ㅅ]으로 발음되는 일반성이나 ‘여쭙다’와 같은 사용 빈도 높은 단어들에 복합적으로 유추되어 ‘저쭙-’의 형태를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르. 오케투지로 예불 저쭈며 비나리하던 명자경상 앞에도 없고 (중략)<꿈>

이 단어에서는 ‘여쭈옵-, 뵈옵-’ 등과 달리 ‘저쭈오-’나 ‘저쭈우-’ 형태의 활용 예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이 단어가 선어말어미 ‘-옵-’이 결합할 ‘여쭈-, 뵈-’ 등에 해당하는 어간 ‘저쭈-’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쭈-, 여쭈옵-, 여쭈옵-’의 경우와 달리 ‘저쭈-’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활용형은 오로지 ‘저쭈-’에만 귀속된다. 따라서 (11)의 예는 이 단어가 ‘받자옵-’다류나 ‘뵈-옵-다’, ‘여쭈-옵-다’ 같은 어간들과 같이 **비불규칙2** 활용에 속함을 말해 준다.

‘칭쭈다’<sup>17)</sup>의 경우는 현재적 용법이 거의 없어 활용 양상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타의 {-술-} 통합 어간들의 활용 양상이나 동일 부류로 묶을 수 있는 ‘저쭈다’의 활용 양상, 현대국어에서는 **비불규칙 용언**으로 재구조화된 ‘잡숫다(<잡숫다>)’의 활용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비불규칙2**’의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조선>, <표준>, <우리>에 등재되어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 단어의 활용형으로 ‘칭쭈와, 칭쭈우니’를, <표준>에서는 ‘칭쭈위, 칭쭈우니’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에서는 이 단어를 ‘**비뻬**’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칭쭈위, 칭쭈우니’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판단에 따르면 이 단어의 자연스러운 활용형은 ‘칭쭈아, 칭쭈니’이다. ‘칭쭈울 일, 칭쭈운 일’보다는 ‘칭쭈일, 칭쭈일’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문맥에서는 ‘칭쭈울’이나 ‘칭쭈을’과 같은 활

17) ‘칭(請)쭈다’는 “극히 높은 사람을 칭하다” 혹은 “극히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칭(請)술-’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성음 사이에서의 ‘ㅎ-’ 생략을 통해 ‘칭습-’의 단계를 거쳐 ‘칭쭈/칭쭈-’, ‘칭옵/칭옵-’ 등으로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와 달리 ‘칭쭈-’으로 재구조화된 단어이다. 이 역시 ‘저쭈다’의 과정과 같이 복합적인 유추 작용이 개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 이외에 합리적인 변화 단계를 밝히기 어렵다.



용형이 나타난다.

(12) ㄱ. 황송하오이다. 기실은 전하께 칭쫘울 일이 있사와 어전에 들어  
왔소이다.<소설 세종대왕 4>

ㄴ. 감히 칭쫘울 말씀이 있습니다.<다정불심>

ㄷ. 큰스님 칭쫘울 수도 없으니 보살님이 하세요.<꿈>

(12 ㄱ, ㄴ)과 같은 예는 아마도 언어 직관에 의한 쓰임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전의 활용 처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12 ㄷ)의 예는 이 용언의 활용형에 혼란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만약 ‘칭쫘울’ 같은 활용형을 인정하더라도 ‘ㄴ불규칙2’의 활용 양상을 보이던 저빈도의 어간이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ㄴ불규칙1’의 활용 양상으로 통일되었다고 설명하면 그뿐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칭쫘워, 칭쫘우니, 칭쫘울’ 등의 활용이 부자연스러움에도 굳이 이를 ‘ㄴ불규칙1’으로 유추적 평준화를 거친 단어로 보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이 단어가 ‘칭쫘다, 칭쫘아, 칭쫘니’의 활용 양상을 갖는 ‘ㄴ불규칙2’ 용언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일관성 있는 처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저쫘다’와 같은 부류의 단어로 분류하였다.<sup>18)</sup>

‘저쫘다’와 ‘칭쫘다’ 부류에 ‘친쫘다’를 추가할 수 있다. ‘친쫘다’는 ‘친쫘다’와 함께 고려해야 할 단어인데, 기존의 국어사전에는 이 두 용언의 관계가

18) 앞에서 논의해 온 ‘ㄴ불규칙2’ 활용형들은 모음형 어미 ‘-아, -았-’의 앞에서 ‘ㄴ’이 탈락하여 ‘-사옵- ~ -사와, -으옵- ~ -으와, -자옵- ~ -자와’로 실현되는 형이 일반적인 데 비해서 ‘저쫘-, 칭쫘-’의 활용형은 ‘저쫘어/저쫘, 칭쫘아/칭쫘’와 같이 나타난다. ‘저쫘어/저쫘’와 ‘칭쫘아/칭쫘’의 문제는 모음조화의 일반적인 현상과 관련된 것이고 ‘-와’, ‘-사와, -자와’의 축약과 ‘저쫘’, ‘칭쫘’의 축약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이 어미 ‘-어/아’를 만날 때 보이는 양상과 동일하다. 즉 ‘오- + -아 → 와’, ‘쫘- + -아 → 쫘아/쫘’, ‘주- + -어 → 주어/쫘’의 활용 양상을 ‘-와’, ‘-사와, -자와’와 ‘저쫘- + -어 → 저쫘어/저쫘’, ‘칭쫘- + -아 → 칭쫘아/칭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어미 ‘-어/아’를 만났을 때의 활용 양상에 대하여는 김양진·정경재(2008)의 논의를 참고할 것.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표준>과 <우리>에서는 이 두 단어를 모두 표제어로 등재하였는데 ‘친쪼다’는 타동사로, ‘친좁다’는 형용사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금성>에서는 ‘친좁다’만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친쪼다’만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친쪼다’와 ‘친좁다’에 대한 <표준>의 처리를 살펴보자.

(13) ㄱ. 친쪼다(親--) [친쪼아(친쪼), 친쪼니] 동 【...을】 가까이 모시고 지내다.

ㄴ. 친-좁다(親--) [-좁아, -좁으니] 형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숙하고 가깝다. 『나리와 친좁게 지내게 된 것을 묻거든 명석잠 주무시려던 것까지 다 이야기할까요?』 <홍명희, 임꺽정> // 두 사람은 그 일 이후로 친좁게 되었다. <표준>

<표준>에 따르면 ‘친쪼다’는 타동사로서 ‘가까이 모시고 지내다’의 뜻이고 ‘친좁다’는 형용사로서 “사이가 매우 친숙하고 가깝다”의 뜻이다. <표준>의 이러한 의미 풀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 두 단어 사이의 의미가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이들이 별개의 단어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표준>에 따르면 ‘친좁다’는 ‘친-좁다’로 분석되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친좁아, 친좁으니’로 활용한다고 처리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친좁다’의 ‘좁-’을 규칙활용 어간 ‘좁-’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런데 ‘친좁다’에 제시된 용례는 홍명희의 <임꺽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는 <조선>에서 ‘친쪼다’에 제시된 용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14) 친쪼다 동 (자) (주로 존경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 나리와 친쪼게 된것을 묻거든 명석잠 주무시려던것까지 다 이야기할까요? <장편소설 “임꺽정” 4> <조선>

홍명희 소설 <임궏정>의 판본 비교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아마도 동일한 단어가 이 소설의 판본에 따라 ‘친쪼다’와 ‘친좁다’로 달리 기록되면서 다른 단어로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표준>과 달리 이 단어를 ‘자동사’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한 혼란은 더욱 심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 단어가 본래 ‘저췌-’, ‘칭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親)ㅎ습-’의 단어 구성에서 ‘ㅎ-’가 생략되어 실현된 활용형에서 발달한 단어라고 본다.

비록 ‘여쭈다, 여쭈다’의 발생처럼 자음형 어미 결합형과 모음형 어미 결합형이 각각 어휘화를 거쳐 발달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어형이 자료의 오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두 단어가 ‘친좁-’과 ‘친쪼-’의 상이한 형태로 재어휘화되었다고 본다면 이들은 ‘여쭈다, 여쭈다’와 유사한 양상의 재어휘화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두 어형 중 하나가 잘못 해석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친쪼다’를 기본 어휘로 보고 모음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분류한다.

‘여쭈다’와 ‘친쪼다’의 예처럼 기원적으로 {-습-}이 통합되어 재구조화되었지만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으로 ‘나쪼다’와 ‘감(鑑)쪼오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은 모음형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활용 패러다임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습-}이 통합되어 재구조화된 후 현대 국어에 남은 용언의 목록에 포함되므로 간략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나쪼다’는 ‘낫좁-’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 ‘낫조오-’가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나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어간말자음 ‘ㄷ, ㅈ, ㅊ’ 뒤에서 선택되던 선어말어미 ‘-좁-’은 어말에서 ‘ㅅ~ㄷ’혼기의 양상을 겪던 17~18세기를 거치면서 어간말자음이 ‘ㅅ’인 ‘낫-’에도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sup>19)</sup>

19) 이 단어는 기원적으로 단순히 ‘나쇼-’의 후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저습-, 칭(ㅎ)습-’이 ‘저췌-, 칭췌-’으로 변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나쇼-’도

(15) ㄱ. 나도 모 심기읍고 타작<sup>ㅎ</sup>은 휘면 낫즈와 뵈오령이다 그지 업  
스<sup>와</sup> 이만 알외읍노이다<현풍곽씨언간, 002>

ㄴ. 공윤이 니르기를 계마당 진어<sup>ㅎ</sup>오신 후의 늑혈이 받드시 나고  
인<sup>ㅎ</sup>야 낫즈오시리라 흐더니<천의소감언해, 2, 006a>

여러 ‘스’ 말음 어간 중에서 유독 ‘낫-’만이 ‘-줍-’의 활용형으로 확장된 이  
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러한 이유가 ‘낫줍-’의 활용형인 ‘낫즈오-’의 어휘  
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낫즈오-’는 ‘낫조-’를 거쳤다가 현  
대국어에 ‘나쫂-’로 남겨진 것인데 어휘화된 이후 기원적 구성에 대한 정보  
는 상실되고 일반적인 ‘지음+오/우’형 어간과 동일하게 완전 활용을 하는  
단어로 재구조화되었다.

‘감(鑑)쫂으다’는 (16)의 예를 볼 때, ‘鑑<sup>ㅎ</sup>술-’에서 기원한 것으로, ‘청<sup>ㅎ</sup>술  
- > 청<sup>술</sup>-’과 같이 ‘감<sup>ㅎ</sup>술-’에서 ‘ㅎ’가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되는 과정과  
‘여쫂다’나 ‘나쫂다’와 같이 모음형 어미 활용형이 어휘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16) 이 글은 쇼인이 지어스오니 감<sup>ㅎ</sup>오시고 엇더<sup>ㅎ</sup>운<sup>ㄱ</sup> 보아 주오심 바  
라읍<sup>노</sup>이다<明溫公主 언간>

그러나 (16)에 제시된 ‘감<sup>ㅎ</sup>오시고’의 ‘감(ㅎ)음-’의 예가 ‘\*감쫂다’나 ‘\*감쫂  
다’가 아닌 (17 ㄱ)에서와 같이 ‘감쫂으다’로 남겨진 이유는 알기 어렵다.  
‘ㅎ’가 생략된 ‘감<sup>ㅎ</sup>술-’에서 ‘술’이 ‘쫂’으로 재어휘화한 후 ‘\*감쫂오- > \*감쫂  
오-’의 단계를 거치고 이화 작용과 같은 기제에 의해 ‘감쫂오-’로 재구조화했  
을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

일정한 유추에 의해 ‘나쫂-’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낫줍-’의  
활용형이 엄존하므로 이 단어를 ‘낫줍-’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 ‘낫즈오-’의 축약  
으로부터 어휘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 (17) ㄱ. “그 글발을 감조으시게 하옵기가 황공하온데 어찌하오리까?”하고  
 취품하였다.<홍명희, 임격정>  
 ㄴ. 얼마간을 기다린 왕에게 신하들은 반지 하나를 바치고는, 거기에  
 그 방법이 새겨져 있다면서 감조시도록 했다.<한겨레신문,  
 2008년 9월 26일>

현대국어에서 ‘감조으다’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17 ㄴ)의 예에서 보듯이 어간 말음 ‘으’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들이 {-술-} 통합 어간에 속함에는 차이가 없다.

#### 4. 불완전 활용을 하는 {-술-} 통합 어간과 잔존형

3장에서 {-술-}이 통합하여 재구조화된 어간의 목록을 살피고 각 어간이 현대국어에서 어떠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활용 양상에서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뵈옵다, 여쭙옵다, 듣자옵다, 묻자옵다, 반자옵다, 좃자옵다, 저쭙다, 청쭙다’는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 ‘비’이 탈락하는  $\text{비불규칙}^2$  활용을 보였다. 둘째, {-술-}의 모음형 어미 활용형이 어휘화된 ‘여쭙다, 친쭙다, 나쭙다, 감조으다’는 모든 어미와 결합 가능한 완전 활용 양상을 보였다. 셋째, ‘뵈다, 여쭙다, 듣잡다, 묻잡다, 반잡다, 좃잡다’는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보였다.

첫째 유형의 {-술-} 통합 어간들이  $\text{비불규칙}^2$  활용을 하게 된 역사적인 과정은 유필재(2002)에서 밝힌 바 있고 본고에서도 그와 관련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로 재구조화된 둘째 유형은 완전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로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셋째 유형의 {-술-} 통합 어간이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 양상을 지니게 된 과정과 이유를 살피고 이를 ‘잔존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여쭙다’와 ‘X잡다’류 단어가 불완전 활용 어간이 된 것은 통시적으로 발생한 형태소 체계의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의 형태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형태 중, 어떤 이형태가 패러다임의 평준화에 따라 대표 형태화하고 특정한 환경에서의 이형태가 잔존형으로 남겨진 경우, 이들이 동일한 기원에서 나왔으며 기능상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도 상보적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의 형태소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태소 체계에서 밀려난 형태는 폐쇄적인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불완전 활용을 하는 형태소가 된다.

이러한 잔존형으로 자음형 어미 앞에서만 활용형이 실현되고 모음형 어미 앞에서는 활용형이 제약되는 일부 준말 어간들을 들 수 있다. 모음형 어미 앞에서 활용형이 제약되는 준말 어간 중에서, 공시적으로는 ‘가지다, 다지다, 마치다, 미치다’의 준말로 처리되어 있는 ‘갓다, 닳다, 맞다, 밋다’ 등의 단어들을 잔존형의 예로 들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본래 ‘갓-, 닳-, 맞-, 밋-’ 등이 기본 어간이었는데, 자음 /ㅅ/의 구개성에 이끌려서 후행의 매개모음 ‘으’가 ‘이’로 전설화되면서 각각 ‘가지-, 다지-, 마치-, 미치-’로 재구조화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갓-, 닳-, 맞-, 밋-’ 등은 ‘가지-, 다지-, 마치-, 미치-’의 준말로 볼 수 없으며, ‘가지-, 다지-, 마치-, 미치-’로 재구조화되면서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제약된 잔존형으로 남겨진 단어로 볼 수 있다.

문법 형태소에서도 이러한 잔존형의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이던 연결 어미 ‘-어, -어도, -어서’는 계사 ‘이-’ 뒤에서 ‘-라, -라도, -라서’의 이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사의 패러다임이 유추적 평준화를 겪으면서 ‘이어, 이어도, 이어서’로 개신되었고 ‘이라, 이라도, 이라서’가 잔존형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또한 근대 이후 동사 어간 뒤에서는 ‘-느냐(가느냐, 먹느냐),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냐, -으냐(예쁘냐, 같으냐)’의 교체를 보이던 의문형 어미가 ‘-느냐’의 약화와 평준화와 같

은 기제에 의해 동사, 형용사의 구별 없이 ‘-냐’로 통일된 뒤에(가냐, 먹냐, 예쁘냐, 같냐), 동사 어간 뒤에서만 쓰이는 ‘-느냐(가느냐, 먹느냐)와 지음형 형용사 어간 뒤에서만 쓰이는 ‘-으냐(같으냐)가 ‘-냐’와 다른 별개의 불완전 활용형 형태소로 남겨진 것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불완전 활용을 하는 {-술-} 통합 어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여쭙-’은 {열졸-}이 지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의 이형태인 ‘열졸-’이 현대국어로 이어진 것으로,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의 형태인 ‘열즈오-’를 이형태로 지녔었다. 그러나 ‘열즈오-’로부터 발달한 ‘여쭙-’에 지음형 어미가 결합하면서 ‘열졸-’에서 재구조화한 ‘여쭙-’과 상보적 분포를 유지하지 않게 되자 두 형태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가 아닌 별개의 형태소, 별개의 단어로 재구조화되었다.

본래 모음형 어미와 매개모음형 어미 앞에서만 실현되던 ‘여쭙-’은 결합 분포를 지음형 어미 앞까지로 넓히면서 완전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쭙-’은 ‘여쭙- ~ 여쭙-’이라는 활용 체계에서 밀려나 진존 형태소가 되었다. 다만 ‘여쭙-’은 ‘여쭙-’을 이형태로 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도 아직은 공식적인 쓰임이 지속되고 본래 자신의 결합 분포를 유지하여 지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되었다. ‘여쭙음-’은 재구조화된 ‘여쭙-’에 다시 ‘-음-’이 결합한 것으로, ‘여쭙-’이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X잡다’류의 경우를 ‘반잡다’를 예로 하여 살펴도록 하겠다. 중세국어 시기 ‘받잡-’과 ‘받즈오-’는 후행 어미에 따른 이형태였으며 이러한 형태소 체계는 전기 근대국어 시기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받즈음-’이 등장하고<sup>20)</sup> 현대국어 시기에는 ‘받자음-’이 ‘받자오-’와

20) ‘-즈음-’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형태였던 ‘-잡-’과 ‘-즈오-’의 혼효형으로 발생했거나 ‘-즈오-’에 ‘-ㅁ-’이 증가되어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증하기 어렵다.

이형태 관계가 되면서 ‘반잡-’이 형태소 체계에서 밀려나 폐쇄적인 분포를 갖는 잔존형이 되었다.

동시적으로 ‘반자옴다’의 활용형은 ‘반자오와 > 반자와’와 같이 /w/ 탈락에 의해 비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데, 그 결과 ‘반잡다’와 ‘반자옴다’의 모음형 어미·매개모음형 어미 활용형이 일치하게 된다. 또한 3.2절에서 살펴듯이 ‘반자옴다’가 공시적인 활용 체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반잡다’는 모음형 어미나 매개모음형 어미와 결합할 때의 이형태를 갖지 못하는 불완전 활용을 하게 되었다.

한편 ‘뵈다’의 경우는 ‘뵈다’나 ‘뵈옴다’와의 경쟁에 의해 형태소의 활용 체계에서 밀려 불완전 활용을 하는 잔존형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1절에서 살펴듯이 ‘뵈다’는 ‘뵈옴다’에서 줄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준말의 형성은 ‘뵈옴-’이 가지고 있는 존대-겸양의 잉여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준말로서 ‘뵈-’이 가지게 되는 불완전 활용의 양상은 ‘뵈옴- > 뵈-’의 변화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반대의 경로를 보이는 ‘갓-, 닳-, 맞-, 밋-’ 등의 잔존형과 다르다. 즉 ‘뵈-’이 자음형 어미 앞에서만 실현되는 이유는 ‘뵈옴- ~ 뵈오-’의 활용에서 자음형 어미 앞에서의 ‘뵈옴-’만 ‘뵈-’으로 축약되었으며, 모음형 어미 앞에서의 ‘뵈오-’는 이에 대응하는 축약형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뵈다’가 보이는 불완전 활용의 양상은 ‘여쭙다’나 ‘X잡다’와 같이 활용형 경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잔존형과 구별된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술-}이 통합하여 새로운 어휘로 재구조화된 어간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들의 활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특히 현대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읍-’과 ‘-사읍-’이 활용하는 양상과 {-습-} 통합 어간이 활용하는 양상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공시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논의의 결과 ‘여쭙읍-’, ‘뵈읍-’은 ‘여쭙-’, ‘뵈-’에 선어말어미 ‘-읍-’이 결합한 것으로 ‘-읍-’의 활용 체계에 따라 ‘ㄷ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듣잡-, 묻잡-, 받잡-, 좃잡-’의 활용형이라고 보았던 ‘듣자오-, 묻자오-, 받자오-, 좃자오-’가 실제로는 ‘ㄷ불규칙<sup>2</sup>’ 활용을 하는 ‘듣자읍-, 묻자읍-, 받자읍-, 좃자읍-’의 어간 이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뵈-, 여쭙-, 듣잡-, 묻잡-, 받잡-, 좃잡-’은 자음형 어미와만 결합하는 불완전 활용 양상을 보였다.

기원적으로 {-습-}이 통합하여 재구조화된 이들 단어들에 대한 기존 국어 사전의 처리는 일관되어 있지 못하며, 일부 어휘는 {-습-} 통합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저쭙-’, ‘청쭙-’, ‘친쭙-, 친쭙-’, ‘니쭙-’, ‘감쭙오-’ 등의 어휘들도 {-습-} 통합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원적으로 {-습-}이 통합된 어간의 이형태와 활용 양상을 정리하고 이들의 패러다임을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 활용과 불완전 활용, ㄷ불규칙<sup>2</sup> 활용과 잔존형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본고의 논의가 국어 어휘의 재구조화 및 용언 활용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습-} 통합 어간, ㄷ 불규칙 활용 2, 잔존형, 패러다임, 재구조화, 불완전 활용

<참고문헌>

1.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 외 편(1991/1996), 『금성판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2006),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2. 논문류

-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17-53면.  
고영근(1987),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 『어학연구』 23-3, 505-526면.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159-165면.  
김성규(2000), 「불규칙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 『형태론』 2-1, 121-128면.  
김양진·정경재(2008), 「국어사전에서 ‘-어/-아’ 계열 어미의 결합 정보 기술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8, 97-121면.  
김양진·정경재(2010), 「‘-사옵-’ 계열 선어말어미의 공시적 처리 방안」, 『한국어학』 46, 175-197면.  
김영옥(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87-109면.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변화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273-299면.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박선우(2005),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학』 30, 223-249면.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서정목(2001), 「현대국어 ‘오오체’ 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형태론』 3-2,

285-311면.

- 서태룡(1992), 「문법형태소의 증가와 기본의미의 증가」,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273-290면.
- 신창순(1966), 「15세기 국어의 보충법과 존대말」, 『한글』 137, 9-36면.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이우출판사.
- 유창돈(1971),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유필재(2000<sup>ㄱ</sup>), 「‘잡숫다’류 동사의 사전 기술」, 『서울말연구』 1, 박이정.
- 유필재(2000<sup>ㄴ</sup>), 『서울방언 용언 자음어간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5, 35-63면.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유필재(2002), 「‘뵤다’류 동사의 형태음운론」, 『한국문화』 29, 43-63면.
- 이진호(2002),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27-57면.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87-138면.
- 임동훈(1998),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85-110면.
- 임홍빈(1998), 현대의 {-습-}과 예시높임의 ‘-오’에 대하여: ‘형태소학’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국어 문법의 심층 I』, 태학사.
-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149-188면.
- 최명옥(1988),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li-, lo-, e(ja)-, h-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 41-68면.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순경음 붕괴의 경우」, 『관악어문 연구』 10, 375-402면.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Abstracts]

## Paradigm of stems including $\{-s\Delta\beta-\}$

Kim Ryangjin, Chung Kyeongjae

This paper has two aims. One is to present the list of stems including  $\{-s\Delta\beta-\}$ , and the other is to establish the synchronic paradigm of these stems.

Paradigm of stems including  $\{-s\Delta\beta-\}$  is classified three classes. First class contains stems with a p- irregular 2 inflection, which are 'yeojjuop-, boeop-, Xjaop-, jeossup-, cheongjop-'. Second class contains defective stems having some restrictions of their distributions, which are 'yeojjup-, boep-, Xjap-'. Third class contains stems with a regular inflection, having reconstructed to stems with vowel ending, which are 'yeojju-, chinjjo-, najjo-, gamjjoeu-'.

**【Key words】** : stems including  $\{-s\Delta\beta-\}$ , the p- irregular inflection 2, persistence, paradigm, restructuring, defective paradigm

· 김양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82-91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우남송추마을아파트 102동 808호

전자우편 : kimrj@chol.com

· 정경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8-955)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5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5동 502호

전자우편 : smiling-tree@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3월 2일에 심사완료되어 3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